

##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

석 현 호\*\*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과 영속화 및 이주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핵심단어: 국제이주이론, 이주과정, 이주의 원인, 이주자의 적응

\* 이 글은 저자가 미래인력연구센터, UNESCO-MOST,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혜경, 정기선, 강수돌, 이정환과 함께 4개년 공동연구로 수행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투자한 국기업의 현지인 노동자의 비교연구를 설계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쓰여진 것임을 밝혀둔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교수

##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제이주 연구에 적용되어 온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 검토를 바탕으로 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참고해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적 지침을 마련해 보려는데 있다. 기존 이론의 검토는 매시 등(Massey, et al., 1993, 1994)에 의한 여러 이론들의 종합적 소개와 평가 그리고 포테스(Portes, 1995) 그리고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1998)에 의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 제안된 구조론적 접근을 참고로 하였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 1994, 1998)은 국제이주에 적용된 여러 이론들을 이주의 발생(initiation)과 영속화(perpetuation) 이론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각각의 이론을 경험적 연구와 연관해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발생론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이론은 신고전경제학의 거시이론과 미시이론,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및 역사-구조적 접근(세계체계론)이론이며, 영속화론으로서는 사회적자본론과 누적원인론을 소개하고 있다.<sup>1)</sup> 이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이론들은 서로 다른 수준과 차원에서 각각 어느 정도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포테스(Portes, 1995)와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1998)는 국제이주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을 거부하고 구조론적 접근의 타당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포테스는 경제사회학에서 발전한 주요 구조적 개념들이 이주 연구에 어느 정도 적절한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카슬과 밀러는 이주체계론적 관점에서 이주의 발생과 이주민의 정착 과정을 포함하는 이주의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국제이주의 발생과 영속화 그리고 적응 내지 정착 과정을 연구하는데 적용된 이론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매시 등은 이주의 처음 두 국면에 관한 이론들, 즉 발생론과 영속화론만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주의 마지막 국면에 관한 이론, 즉 적응론을 추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1) 매시 등은 나중에 펴낸 저서(Massey, et al., 1998)에서 먼저 발표한 두 논문(Massey, et al., 1993, 1994)에서의 이론분류를 다소 수정하고 있다. 발생론으로 고려한 이론들은 수정하지 않았으나 영속화론에서 이전에 구분하였던 사회연결망이론과 제도이론을 사회적 자본론 이름 아래 함께 묶어놓았고 마지막에 소개하였던 이주체계론은 아예 제외시켰다. 이러한 재분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이 글에서는 이에 따라 이주이론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 매시 등이 검토 대상으로 삼은 발생론과 연속화론은 모두 이주의 원인 구명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이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주 후 적응과 정착과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주의 전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론들을 이주의 국면별로 검토하려는 이유는 각각의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이주이론들을 이주의 국면별로 소개한 다음 이 이론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념적 요소들을 구조론적으로 종합하려는 시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구상된 행위체계적 접근을 결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II. 발생론

이주이론은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이론들은 대체로 이 이론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여기서 우리는 이주이론을 선도하여온 신고전경제학이론을 먼저 소개하고 이에 도전하여 제안된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그리고 세계체계론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이론들은 매시 등(Massey, et al., 1993)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각각 개인, 가구, 국가, 그리고 세계의 수준에서 이주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제안된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상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가정 하에 서로 다른 명제들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소개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1.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신이주경제학

매시 등(Massey, et al., 1993)은 이주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을 거시이론과

---

2) 이주이론들은 대체로 시간과 공간의 기준에 관계없이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이주 현상을 대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여기서의 검토는 국가간의 이주에 적용되어 온 이론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둔다.

미시이론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거시이론(Lewis, 1954; Ranis and Fei, 1961; Harris and Todaro, 1970; Todaro: 1976)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간 차이를 인구이동의 근본적 원인으로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제인구이동은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로부터 자본은 풍부하나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들로 일어난다.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은 반면에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에서는 실업률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인구이동은 국가간의 임금차이를 이주의 비용만큼의 차이만 남기고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신고전경제학의 거시이론은 미시이론(Sjastaad, 1962; Todaro, 1969; Greenwood, 1985; Todaro and Maruszko, 1987)을 예고하고 있었다. 거시이론의 기본명제, 즉 국제이주는 국가간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명제는 결국 이주행위는 지역간 고용기회와 임금의 차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의 미시이론은 인적자본론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이주를 인적자본투자 현상으로 개념화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적자본(교육, 경험, 훈련, 언어능력 등)을 투자하여 고용이 가능하고 비용-이익의 계산에 의해서 가장 큰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여기서 비용은 이주에 들어가는 현금 비용과 정든 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심리 등의 비현금 비용을 포함하고 순이익은 두 지역간 기대소득의 차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이주의 비용을 뺀 나머지로 계산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가간의 인구이동량은 비용과 이익의 계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개인 이주의 총화에 불과하다.

위에서 소개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은 이주의 결정이 개인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신이주경제학”(Stark and Levhari, 1982; Stark, 1984; Katz and Stark, 1986; Lauby and Stark, 1988; Tayler, 1986; Stark, 1991)은 국제이주, 특히 저개발국에서의 이출은 개인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단위, 전형적으로는 가구(또는 가족) 단위로 결정된다고 본다. 더 자세히 말해서 사람들은 가구의 기대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국내 시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불안정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국가간의 임금차이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로의 이출은 자국내에 다른 지역시장이 부재하거나 불완전 또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이주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은, 거시이론이든 미시이론이든, 기본적으로

경제균형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 접근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국가간의 임금 차이 때문에 일어나므로 이주가 일어나는 만큼 국가간의 임금의 차이가 감소하며, 그 결과로 국가간의 임금의 차이가 없어지면, 즉 경제적 균형상태가 이루어지면, 국가간의 이주는 중단된다. 그러나 국제이주는 신이주경제학에서 주장되듯이 가구들이 소득의 원천을 다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간의 임금 차이가 없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신이주경제학은 이 점에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의 결함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도 신고전경제학 접근이나 마찬가지로 이주를 합리적 선택으로 개념화하여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2. 노동시장분절론과 역사-구조론(세계체계론)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은 경제구조적 조건을 이주의 주된 요인으로 고려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이론, 즉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신이주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해 주고 있다. 노동시장분절론(Piore, 1979)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발전된 국가들의 경제구조에 본질적 특성인 이주노동력의 영구적 수요 때문에 일어난다. 자본은 생산의 고정요소인 반면에 노동은 가변요소이다. 따라서 발전된 국가의 자본가들은 전문-숙련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안정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으나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임금수준을 직업 지위 또는 위세의 척도로 생각하는 전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노동자 집단간의 임금 차이는 항상 크다. 노동자들이 이렇듯 두 부류로 구분됨에 따라 노동시장도 자본 집약적인 일차부문과 노동집약적 이차부문으로 분절된다. 즉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수준이 높으며 직위 상승이 가능한 전문-숙련 직종의 노동시장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으며 직위 이동이 거의 없는 미숙련 직종의 노동시장으로 양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된 국가들의 본국인은 후자에서의 고용을 기피하고 전자에서 고용되기를 원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이 때문에 생긴 미숙련 노동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충원정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에 의하면 노동시장분절론은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신이주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명제와 상충하지는 않는다. 발전된 국가의 본국인들이 이차부문의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성향은 외국인 노동자들(후진국으로부터의 이주자)에게 모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가구수입을 위협이 없이 상승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다른 명제를 제안한다. 국제노동이동은 주로 발전된 국가들에서의 노동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고 고용주들에 의한 총원 또는 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부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이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이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이주발생론은 세계체계론적 접근(Portes and Walton, 1981; Petras, 1981; Castells, 1989; Sassen, 1988, 1991; Morawaska, 1990)이다. 이 접근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주변국 시장 침투가 국제이주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중심국의 자본가들은 더 높은 이윤과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하여 농지, 원자재, 그리고 노동 및 소비시장을 찾아 주변국들로 침투해 들어간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장침투가 식민정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신식민정부와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이론이 제안하고 있는 주요 명제 가운데 하나는 국제노동이동은 자본과 상품의 흐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나며, 그것은 특히 과거의 식민지와 그의 모국간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간에는 문화, 언어, 행정, 투자, 교통 및 통신의 연결이 일찍부터 확립되었고 특별한 시장 및 문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발생론에 대한 평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제이주이론은 대체로 주류경제학(신고전경제학) 이론에 대한 보완 내지 대립적 관점에서 제안되었다. 신고전경제학이론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이론은 맑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이다.

신고전경제학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국가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와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노동력 이동의 결과 그 차이가 감소된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인적자본론의 적용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포테스(Portes, 1995)는 이러한 신고전경제학 이론은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풍요로운 중심국들로의 노동력 송출국들은

고용조건이 가장 열악한 주변국들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들보다 고용조건이 더 좋은 중간수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이므로 신고전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1998)도 포테스와 유사하게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이들의 비판 근거는 이 접근의 기본 가정의 비현실성에 두고 있다. 즉 국제이주가 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 즉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이주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민 수용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강국들이 타국민의 이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에 의하면 국제이주의 근본적 원인은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형, 특히 임금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주가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게 되면 그 차이가 좁혀져서 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 이는 이주의 역사적-구조적 원인을 무시한 단순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자본강국과 빈민국 간의 불균형 현상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신고전경제학의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다.

신이주경제학은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의 기본 가정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이론에서 이주는 자유시장 상황에서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가 아니라 저개발국의 가구들이 불완전한 시장상황에서 소득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현상으로 개념화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대가족 형태가 지배적인 농촌으로부터 국제이출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인 도시로부터의 이출을 설명하는 데에는 그리 적절하지가 않다. 소가족의 경우 가구소득의 위험을 분산할 여분의 노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세계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일어나는 주변국들로부터 중심국들로의 영구적 가족이동은 물론이고 국제노동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일어나는 대규모 일시적 이주를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이주는 가구의 합리적 선택보다는 이주노동력의 구조적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분절론은 국제이주가 자본강국의 노동수요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본강국의 노동시장은 고임금의 일차시장과 저임금의 이차시장으로 분절되어 있고 국제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차노동시장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자본강국의 노동시장은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만큼 이념형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이론도 경험적 사실을 무시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이론은 또한 국제이주자들 가운데에는 두뇌유출형 이주의 경우와 같이 일차부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차부문에 유입된 이주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상향이동하는 현상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이론은 이출국의 노동시장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입국의 노동시장 구조만 고려해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주 전 상황과 의사결정과정을 고려에 넣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 한계성은 귀환이 전제된 일시적 노동이주의 경우에는 더욱 크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이입지의 노동시장 조건뿐만 아니라 이출지의 노동시장 조건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계체계론은 국제이주의 주요 흐름, 특히 과거에 식민모국과 식민지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 간의 인구이동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 이론도 노동시장분절론이나 마찬가지로 중심국 자본의 지배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송출국인 주변국의 경제적 내지 비경제적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의 영속화와 이주 후 적응과 정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연결망과 이주서비스기관들의 발전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작용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결함이다. 더 나아가서 이 이론도 새로운 국제노동시장의 발전에 따른 일시적 노동이주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과거에는 식민모국과 식민지간의 영구이주가 지배적인 이주의 형태였으나 오늘날에는 국가들간의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더불어 일시적 이주도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이주 현상, 예컨대, 1974년 “석유파동” 직후에 일어난 저발전국들로부터 중동의 산유국들로의 노동이동과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동일한 저개발국들로부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준주변국들)로의 노동이동은 이 이론의 관건적 개념인 자본의 지배 내지 중심국-주변국의 영향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 III. 영속화론

이상에서 우리는 국제이주의 발생원인을 구명하는데 기여한 이론들인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그리고 세계체계론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차원에서 서로 다른 요인들, 즉 개인의 보다 더 많은 소득 욕구, 가구



소득의 위험성 분산을 위한 시도, 저임금 노동자 고용 정책, 중심국에 의한 주변국에 의 시장침투를 이주의 주된 발생조건으로 제안하고 있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은 이러한 이주의 발생 조건들은 이주의 영속화 조건들, 즉 일정 이주의 흐름이 확립되면서 형성되는 후속 이주의 사회적 조건들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이주의 영속화론을 그 발생론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들이 영속화 이론으로서 분류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론과 누적원인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자본론

사회적 자본론은 가장 최근에 제안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즉 사회연결망과 사회제도에의 참여가 자원 획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근거한다. 어느 두 국가간의 이주자들이 일정한 수를 넘어서면 이주연결망, 즉 이주자, 이전 이주자 그리고 이출지 및 이입지의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친족, 친구, 동향인 등의 대인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주연결망이 형성되면 그것은 이주의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켜 순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이들간의 이주 가능성을 높여준다(Hugo, 1981; Tayler, 1986; Massey and Garcia Espana, 1987; Massey 1990a, 1990b; Gurak and Caces, 1992). 그리고 이러한 이주연결망의 형성은 정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그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정 국가들간의 이주연결망의 형성은 이들간의 이주를 영속화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정 국가간에 이주가 시작되면 이 흐름에 관계하여 영리를 취하는 사조직들과 이주자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발전한다. 전자는 자본 강국들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이 국가들에서의 입국허가는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이민알선업체와 같은 영리업체들을 말하고 후자는 이주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상담, 사회 서비스, 법률자문, 보호처 등을 제공하는 사회단체들을 말한다. 이와같은 이주 서비스 조직들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이주의 흐름은 점점 더 제도화 되고 당초에 그 원인이 되었던 요소들과는 독립적이 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을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이주를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 2. 누적원인론

국제이주는 이주연결망의 확대와 이주자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조직체들)의 발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주에 의해서 변화된 사회적 맥락이 이주의 원인이 되어 영속화 되는 경향이 있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은 이러한 누적적 효과에 의해서 이주가 영속화되는 여섯가지 사회적 맥락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이출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가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이들로부터도 이출자를 나오게 만든다. 둘째, 어떤 이출자들은 생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세 또는 은퇴후 소득을 위하여 농토를 구입하기 때문에 휴경지가 늘어나고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만큼 지역 농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이것이 이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이출자가 있는 농가들은 자본집중적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지역농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켜서 이출 압력을 가한다. 넷째, 일정 지역에 이출자가 많아질수록 그 지역의 문화-가치가 이출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변하고 일시적 이주자들은 이입지의 높은 소득과 소비 등의 생활방식에 유인되어 반복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고급인력의 이주는 이출지에서는 인적 자원을 고갈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입지에서는 인적 자원을 축적시켜 경제성장을 보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주를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국제이주자들은 특정 직업들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고 원주민들은 이러한 직업을 가지기 꺼려하여 이 직업들에 이른바 “이민직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민을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3. 영속화론에 대한 평가

사회적 자본으로 고려되는 이주연결망과 이주서비스제도에의 참여는 이주의 비용과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누적적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입자의 적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연결망과 이주제도 그 자체는 이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 원인으로서는보다는 매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것 같다. 말하자면 이주를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주와 이주 후의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렇지 못할 경

우에는 오히려 이주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연결망과 이주제도가 그 자체가 이주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 이주가 영속화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적자본론자들이 이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경제적 요소들을 심리적 비용(psychic cost)로 환원하는 것만큼 이론적 개념에 잘못된 구체적 사실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주의 원인에 관한 마지막 이론으로 소개된 누적원인론을 보자. 이 이론은 사회적 자본론과 함께 이주의 영속화를 설명하는 두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로 제안되고 있으나 사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누적적 원인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이론적 가정하에 제안된 것이 아니라 이주연결망, 이주제도,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이출지 경제의 변화, 이입지 인적 자원의 변화, 이주의 가치와 동기, 이주직업의 발전 등 여러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제기된 요인들의 집합적 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어떤 귀납적 이론 모형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렇게 구성된 모형을 일반화하여 형태가 다른 모든 국제이주 흐름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 IV. 적응론

앞에서 소개한 이주의 발생론과 영속화론은 모두가 이주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이론을 분석적 목적을 위해서 구분해 보았듯이 이주의 결과론, 즉 이주 후의 적응 내지 정착에 관련하는 이론도 그것의 원인론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주의 원인이 되었던 요인들이 이주 후 적응 내지 정착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역으로 이주후의 적응에 관련된 요인들도 이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원인론과 결과론의 구분 역시 분석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이주자의 적응 내지 정착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어온 이론들을 경제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로서는 인적자본론과 노동시장분절론을, 그리고 후자로서는 전통적 이민사회학과 경제사회학을 들 수 있다. 먼저 경제학적 접근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1. 경제학적 접근: 인적자본론과 노동시장분절론<sup>3)</sup>

인적자본론을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대한 연구에 적용한 대표적인 학자는 치스윅(Chiswick, 1978, 1980, 1983, 1984, 1994)과 보하스(Borjas, 1983, 1985, 1987, 1990, 1995)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같은 이론적 접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립적 주장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치스윅은 이주자의 적응이 이주 전에 축적한 인적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주 후에 획득한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동화효과”를 주장한 반면에 보하스는 치스윅의 연구는 횡단자료인 센서스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코호트 효과”를 무시한 잘못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치스윅의 연구(Chiswick, 1978, 1980, 1983, 1984, 1994)에 의하면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은 이민 초기에는 그들이 고국에서 획득한 인적자본(기술)의 기술전환도가 낮아서 소득이 낮으나 차츰 새로운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즉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되어, 점차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그의 연구는 더 나아가서 이주 후 시간효과는 매우 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능가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보하스(Borjas, 1983, 1985, 1987, 1990, 1995)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보하스에 의하면 치스윅의 연구는 이주자의 코호트를 무시하고 횡단자료인 센서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60-1970 년대에 기술 이민을 허용하였고 1980년대에는 이민의 가족 재결합을 확대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자질이 후기에 올수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치스윅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스윅의 횡단 자료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는 적응력이 높은 1960-1970 년대의 이주자들보다 적응력이 낮은 후기 이주자들 가운데 귀환이동자가 더 많았을 가능성을 무시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해경(1998)은 인적자원론의 검증에서는 보하스가 주장한 것처럼 횡단자료보다 코호트 자료의 이용이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주 전의 인적자본과

3) 경제적 적응에 대한 이 두 이론적 접근은 이해경(1998)에 의해서 분류되고 소개된 것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주 후에 획득한 인적자본 가운데 어느 것이 이주자들의 경제적 성취에 더 중요한지는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이론내에서 동일 요인의 경험적 사실 발견의 문제이지 이주자의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분절론은 이주자의 적응 문제에 관련해서 인적자본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경(1998)은 그 이론을 파리오레(Piore, 1979: Doeringer and Piore, 1971)의 이중노동시장이론, 보나치치(Bonacich, 1972, 1976, 1979)의 분할노동시장이론, 그리고 포테스(Portes, 1981, Portes and Bach, 1985)의 인종집단특수시장이론으로 구분하고 있다.<sup>4)</sup> 파리오레의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의 직업과 소득은 일차부문 노동시장과 이차부문 노동시장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르고 대부분의 국제이주노동자들은 선진국의 이차부문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의 보상은 인적자원과는 무관하게 열악하다는 것이다. 보나치치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노동시장은 고임금의 백인 노동자 집단과 유색인종 내지 이주민으로 구성된 저임금의 노동자 집단 그리고 이들의 고용주 집단이 카스트 제도처럼 구조화되어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백인 내국인과 경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의 포테스에 의한 인종집단특수시장이론은 미국의 이주자들은 일반노동시장에서 백인들과 대등하게 경쟁하지 못하며 이차노동시장에 들어가던가 인종집단별로 노동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중국인촌, 쿠바인촌, 한인촌은 그 대표적인 인종집단시장이다. 라이트 등(Light, 1979, 1984; Light and Bonacich, 1988)은 이러한 인종집단시장의 형성은 계급적 자원(물질적 자산과 부르주아적 가치관)과 사회적 자원(같은 인종끼리의 사회연결망과 유대감)의 동원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 2. 이민사회학과 경제사회학

이주자의 적응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이민의 낙원"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

4) 보나치치와 포테스의 이론은 경제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없으나 파리오레의 이론에 근거해서 발전한 같은 노동시장분절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다루었다. 파리오레의 이론은 사회적 요소를 중시한 경제학적 이론이라고 한다면 보나치치와 포테스의 이론은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졌고 그것은 미국사회학의 발생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카고학파에 의한 이민집단 연구들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파의 초기 연구는 토마스 와 즈나니에키의 『유럽과 미국의 폴란드 농민』(Thomas and Znaniekie, 1918)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듯이 이민집단의 사회적 동화 내지 적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주자의 경제적 적응 문제는 이 학파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주자의 경제적 적응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학적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시도되었다.

포테스(Portes, 1995)에 의한 이민사회학의 경제사회학과의 결합은 최근에 이루어진 그 대표적인 시도의 하나이다. 이 시도가 가능한 것은 경제사회학이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하여 왔듯이 최근에 제안된 국제이주연구의 주요 개념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도에서 포테스는 사회적으로 지향된 경제적 행위,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된 거래(embedded transactions)<sup>5)</sup>, 사회연결망, 사회적 자본<sup>6)</sup> 그리고 누적적 및 의도되지 않은 효과<sup>7)</sup> 등 경제사회학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들이 최근 이주연구에서 제안된 주요 개념들인 중심부-주변부 관계의 영향(core-periphery influence), 편입양태(modes of incorporation), 중개인 집단(middleman groups), 인종군락(ethnic enclaves), 그리고 비공식적 경제(informal economy)를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이 개념들 가운데 첫 번째 개념인 중심부-주변부 관계의 영향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세계체계론의 관점에

5) 이 개념은 헝가리의 인류학자 폴라니(Polani, 1957)가 시장은 보편적 형태의 경제조직이 아니라 현 대자본주의에 상응하여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형태라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사용하면서 유래된 것이다.

6) 포테스(Portes, 1995)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망이나 그보다 더 넓은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성원자격에 의해서 희소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한 희소자원으로는 자격확인과 무이자 대출과 같은 유형적인 경제적 자원도 있고 사업정보, 고용정보, 시장거래에서의 기득권과 같은 무형적인 경제적 자원도 있다. 사회적 자본은 돈(물질적 자본)이나 교육(인적 자본)과 같이 개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관계에서 다른 사람은 도덕적 의무와 수혜자와의 연대감의 동기에서 희소자원을 제공한다.

7) 누적원인효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한 예로서 그라노베테르(Granovetter, 1974)의 구직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과거의 실업기간과 초기 고용의 실패가 개인들의 사회망을 통한 취업정보의 결여 때문에 취업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월딩거(Waldinger, 1992)의 인종집단 직업적소(occupational niche)에 대한 연구는 그 반대로 먼저 온 이주자의 주선으로 취업하는 누적 효과를 예시해 주고 있다.

서 이주의 발생 원인을 구명하는데 적용된 개념이고 나머지 3개의 개념은 주로 이주자의 적응 내지 정착 과정에 관련하여 제안된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의 개념들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주자들의 편입양태(Portes, 1990, 1994)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 앞에서 소개된바와 같이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에 의하면 이주자의 경제적 성취는 교육, 언어 능력, 일의 경험 등의 인적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 포테스는 이 접근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주자들의 인적자본은 그들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나 이것만으로 이주자들의 직업이동과 소득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주자들의 장기적 경제적 적응은 개인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의 성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주목하고<sup>8)</sup> 이들이 사회적 맥락으로 진입하는 과정, 즉 편입 양태를 고려에 넣을 것을 제안한다.

포테스에 의하면 이주자들은 인종집단별로 정부, 사회 및 공동체 등 세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양태로 이주사회에 편입된다. 첫 번째 차원은 이민 수용 국가의 정부가 어떤 이민집단들에 대하여 수용, 거부 그리고 중립 가운데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 차원은 시민사회와 여론이 어떤 이민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며, 마지막 차원은 어떤 이민집단이 얼마나 강한 또는 약한 인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는 정부의 수용 여부를 적극적인 정착 지원, 중립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로 구분하고 사회의 수용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특성(phenotype)과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백인과 비백인으로 구분하여 모두 12가지의 편입양태를 식별하고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미국의 이민집단들을 예시해 놓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국인 이민집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중립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비백인이라는 점에서 편견의 대상이며 강한 인종공동체(코리아 타운)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유럽의 난민집단은 정부에 의한 정착 지원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편견없이 수용되었으나 약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포테스는 이주민의 경제적 행위는 이러한 편입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8)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이민의 경제적 적응을 연구한 치스윅(Chiswick, 1978)도 인종집단효과를 인지하고 있었고 미국의 인종집단간 소득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도 인종집단간 인적자본의 효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었다(Reimers, 1985).

그 효과를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의 “내재성(embeddedness)” 개념<sup>9)</sup>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그는 정치와 사회에 의한 제한과 수용 가능성을 이주자들의 정착과정의 “구조적 내재성”으로서 그리고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중개되는 인종공동체의 도움과 제약은 “관계적 내재성”으로 구분해서 보았다. 인적자본론과 같은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부류의 개념인 중개인 집단, 인종군락, 그리고 인종집단 직업적소를 보자. 이주자들은 자영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은 처음에는 차별대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연구들은 독립적 기업에 종사코자 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주자들 가운데서 자영업 종사자의 평균소득이 다른 직업종사자들의 평균소득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보나치치(Bonacich, 1973)는 상당수의 이주자들이 주류 사업에서는 탈락되었으나 빈민들에게 필요한 자영 상업과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소수인종 중개인”이라고 칭하였다. 인종군락은 흩어져 있는 중개인과는 달리 같은 소수인종 이주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공간적 집락을 말한다. 이민 기업의 또 다른 형태는 인종집단 직업적소이다(Waldinger, 1992; Baily and Waldinger 1991). 이는 이주자가 기업을 소유한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업에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나중 이주해 온 같은 인종의 노동자들을 자신의 직장으로 데려오는 현상이 계속되어 점차 그 직장이 한 인종집단의 “기업”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작업장에서의 이주자들의 모국어 사용과 과업수행에 독특한 문화적 관행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공식적 관리자와 소유주의 권한 축소는 이러한 전환의 지표가 된다.

중개인, 군락 그리고 직업적소는 서로 그 구조와 작용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출현과 성공은 모두 사회연결망에 달려있다. 인종집단 연결망은 중개인의 사업장소와 직업적소에서의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의 근원이 된다. 이 연결망은 중개

9)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는 경제적 행위와 결과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내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대가 어떻게 시장거래와 기업내 거래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제시하고 경제행위자들의 사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관계적” 결합과 경제행위자들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르키는 “구조적” 결합을 구분하고 이를 정교화하였다. 전자는 규범적 기대, 상호인정의 탐색, 거래의 상호성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경제적 교환의 보다 큰 사회적 집합체에의 결합을 말한다. 큰 사회적 집합체는 특정 거래와 사회적 지위 및 위세와 같은 보상의 수여자에 대한 규범적 기대의 근원이 된다.



업과 적소기업의 착수에 필요한 자본의 원천으로서도 중요하다. 같은 인종 이주자들의 사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같은 인종의 이주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같은 직장(작업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자기 이익의 동기에서 하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동시에 내집단 연대에 근거한 이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Waldinger, 1992;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인종군락내의 고용주들은 연대와 신뢰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기강과 노력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군락내에서의 비공식적인 훈련은 상하이동을 조장하고 적소의 확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Baily and Waldinger, 1991).

포테스가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주자들의 비공식적 경제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사회학의 연구 주제가 되어온 것이다. 여기서 비공식적 경제란 법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는 소득 활동을 말한다. 무허가 노점상, 싸구려 상품의 생산, 집수리 등이 그 대표적 활동이다. 이러한 양태의 경제활동은 인종군락 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인종군락의 중심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것들이다.

### 3. 적응론에 대한 평가

위에서 소개한 두가지 적응론, 인적자본론과 경제사회학적 접근은 모두 경제적 적응 문제에 관련한다. 인적자본론은 이주자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신고전경제학의 기본가정, 즉 합리적 행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의 발생론에서 지적하였던 동일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포테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자의 적응은 이주자의 인적 자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과 인종집단 문제를 관건적 요소로 고려하는 경제사회학적 접근은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고는 있으나 이주자의 적응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한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접근은 사회문화적 적응 그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주자의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앞에서 소개한 이주의 연속화론, 즉 사회적 자본론과 누적원인론이 암시하고 있는 현상, 즉 이주자가 일정한 수에 이르게 되면 비교적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의 경제적 내지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직체들이 발전한다는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 V. 다차원적 구조론과 그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우리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사회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주이론들을 이주의 국면별로 소개하고 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주란 과정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과 영속화에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적응과 정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은 개인과 가족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과 국가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단일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4)은 북아메리카 이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여러 경험연구들의 검토를 통해서 위에서 소개된 발생론과 영속화론 모두가 각각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에 근거해서 이들은 각각의 이론들은 서로 다른 인과론을 펴고 있으나 반드시 대립적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조적 제약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이른바 “원자이론”과 개인 또는 가구의 행위를 부정하는 “구조이론” 모두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이주의 인과과정들은 다차원적 수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방향에서 제안된 이론은 다차원적 구조론 뿐이다. 포테스(Portes, 1995) 그리고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1998)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접근의 주된 관심사인 이주의 거시구조와 더불어 최근 사회학의 중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연결망 등의 미시구조를 함께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포테스와 카슬 모두 신고전경제학에서 배제된 동일한 구조적 요소들을 강조하나 각각의 개념구도는 조금 다르다. 포테스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거시와 미시의 두 구조적 차원을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일반화하려고 노력한 반면에 카슬은 이 두 차원을 이주체계 개념에 포함시켜 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짜려고 시도하였다.

포테스(Portes, 1995)는 국제이주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거시구조적 접근과 미시구조적 접근 모두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다차원적 구조론을 제안하였다. 거시구조적 접근은 강한 중심국들에 의한 약소국 접촉, 식민화 및 간섭과 후자로부터 전자로의 인구이동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국-주변국”과 “구

조적 불균형”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강대국들의 주변국들로의 확장이 안정된 규모의 국제노동력 이동을 일으킨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접근은 주변국들의 사회, 경제 및 문화 제도의 재구조화가 이주에 선행하여 일어났음을 중시한다. 세센(Sassen, 1988)에 의한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에 대한 연구는 중심국에서의 산업재구조와 탈산업화가 어떻게 주변국들의 국제노동력 이동을 촉진시켜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산업자본의 주변국들로의 이동은 주변국들의 인구를 움직여 놓았고 노동자들을 서구의 생산양식과 문화유형에 노출시켰다. 그러나 이들의 이른바 “탈출 산업”에서의 고용은 단명으로 끝나고 많은 노동자들, 특히 남자 노동자의 실업이 양산되는 등의 이유로 중심국으로의 이주 현상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남자 노동자의 실업이 양산되는 이유는 탈출산업이 여자 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포테스는 이렇듯 대규모의 국제이주를 일으킨 세계체계의 중심국-주변국 구조와 이 구조의 불균형적 특성을 사회적 “내재성”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

포테스는 국제이주의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거시구조 수준에서의 개념들은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어 왔으나 미시구조 수준에서의 개인간 그리고 공동체간 이주 성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은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많은 학자들이 미시구조의 수준에서 이주를 사회연결망의 형성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이 개념을 통해서 이주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여 왔음을 중시하고 이러한 미시구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1998)도 포테스와 유사하게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역사-구조적 접근은 모두 너무 일방적이어서 복잡한 현대의 이주 현상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다차원적 구조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은 이주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된 크리츠와 즐로트닉의 이주체계론(Kritz and Zlotnik, 1992)<sup>10)</sup>을 조금 더 확장하여 제안된 것이다.

10) 크리츠와 즐로트닉(Kritz and Zlotnik, 1992)에 의하면 국제이주의 흐름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체계의 식별이 가능하다. 이 체계는 일정 국가간에 비교적 높은 밀도의 재화, 자본 및 인적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심국과 여러 송출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론이 제안하고 있는 주요 명제는 이주체계내에서의 이주는 물리적 관계보다는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며 따라서 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이

카슬과 밀러는 인구이동을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한다. 여기서 거시구조는 세계시장의 정치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이주를 통제하는 이출국과 이입국 정부에 의하여 확립된 법, 관행 등의 대규모 구조적 요인들을 말하고 미시구조는 이주자들의 사회연결망, 관행, 신념 등의 미시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주의 거시구조를 구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세계체계론은 과거 5세기에 걸쳐서 점점 더 통합되어온 세계 경제의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발전이 인구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카슬과 밀러가 가장 중요한 미시구조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포테스와 마찬가지로 이주자들이 이주와 이입지에서의 적응을 위하여 발전시킨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이다. 이주 연결망에서 중요한 연결은 가족관계와 공동체 유대이다. 이를 통해서 종종 연쇄이주(chain migration)가 일어난다. 어떤 형태로든 이주가 발생하여 그 통로가 확립되면 이를 따라 후속 이주가 일어난다. 그리고 후속 이주자들은 먼저 온 이주자보다 비교적 쉽게 정착한다. 가족과 이출지 연고에 의한 사회연결망이 이주자의 거처, 취업, 관료제적 절차에의 적응 등에 도움을 주며 개인적 곤경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주는 일단 시작하면 자기-영속적인 사회과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주의 연결망은 복잡하고 종종 애매한 성격으로 발전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주의 촉매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이주산업” (충원기관, 법률서비스업, 직업소개업, 밀입국알선업 등)에 종사하여 이주자들을 도와주면서 착취한다. 불법이주가 발생하거나 이주노동력의 공급과잉 상황에서는 착취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주산업의 출현은 종종 이주를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주의 연결망은 이입지에서의 정착과정과 공동체 형성에 기초가 된다. 이주자 집단은 예배의 장소, 결사체, 상점, 커피집, 법률가와 의사와 같은 전문가, 그 밖의 서비스 등 그들 자신의 사회적 및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킨다. 이주자 공동체와 이출지 간의 관계는 수세대 지속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송금과 방문 회수는 감소할 수

---

변함에 따라서 이주체계도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이론(grand theory)인 만큼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주체계는 일정한 이주의 흐름이 영속화된 후에야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론은 이주를 예측해 주는 일반이론이라기보다는 경험적 일반화 내지 사후적 설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있으나 가족과 문화적 연결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출지와의 경제적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고 국제정치적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으며 문화적 교환도 일어날 수도 있다.

카슬과 밀리에 의하면 이주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는 이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 두 구조는 모두 이주과정의 측면으로서 연구될 수 있다. 즉 국제이주의 원인과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이들의 상호작용들을 이주과정의 개념 하에 총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뵘닝(Böhning, 1984)의 연구에 근거하여 국제이주과정을 다음과 같이 4단계 모델로 요약하고 있다.

1. 젊은 노동자의 일시적 이주, 소득의 송금 그리고 고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향.
2. 체류 연장 필요성과 친족유대 또는 동일한 출신지에 근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상호부조 필요성에 근거한 사회연결망의 발전.
3. 가족의 재결합, 장기간 정착의식의 성장, 이입지 사회에 대한 지향 증대, 자체 기관들을 가진 인종공동체의 출현.
4. 이입국의 정부와 인구의 조처에 따른 법적 지위의 획득(결과적으로는 시민권의 획득 또는 정치적 배제), 사회경제적 한계화 및 영구적 소수인종집단이 되는 영구적 정착.

카슬과 밀리에 의하면 이 모델은 2차대전 이후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서부 유럽 및 호주로의 이동과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로부터 북아메리카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과거의 식민지로부터 식민 강국으로의 이동에도 잘 부합한다. 즉 이 국제이주의 흐름에서 처음에는 노동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후에 가족재결합, 정착, 그리고 공동체 형성의 순서로 이주과정이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피난민 이동과 고급 숙련인력의 일시적 이동에는 덜 적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적용해서도 분석적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이동도 종종 가족재결합과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이라기보다 경험적 일반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역사적으로 발전한 세계의 주요 국제이주(흐름)들을 식별하고 이들을 역사-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직 미시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일반화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간의 연관성 맥락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부실하다. 그 연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주의 구조적 요소들은, 미시적인 것이든 거시적인 것이든, 그 요소들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주행위의 상황적 조건으로 개념화될 때에만 이들을 적절하게 연관시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주의 상황적 조건을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로 구분해 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모두 행위의 상황적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이주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연결망, 이주민공동체, 이주서비스 기관 등은 이주행위의 사회적 내지 문화적 상황에 불과하고 거시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는 정치적 내지 경제적 상황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론은 이주의 요인들을 이주행위의 틀 밖에서 이주를 결정하는 요소로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의 조건을 탐색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이주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Ⅵ. 결론: 행위론적 접근의 시도

가장 바람직한 이주이론은 이주의 전과정을 구조적 요소와 함께 행위적 요소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적 이론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아직 구조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이론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8)은 최근 저서에서 국제이주연구는 이주의 동기적 요인로부터 역사-구조적 및 세계체계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는 일련의 명제, 즉 종합이론을 제안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 두 수준에서 제안된 모든 요인들을 논리적으로 상호 연관된 일단의 명제로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은 어느 한 쪽의 우위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각각의 이론이 축적한 지식을 각각의 연구를 보완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모두에서부터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이론은 합리적 행위 가정에 근거한 신고전경제학의 적용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이론들은 대체로 신고전경제학에 대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의 도전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 도전을 대표하는 노동시장분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은 신고전경제학의 기본 가정,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을 철저히 부정한다. 최근 수십년간 이주 연구는 이러한 구조론들에 의

해서 주도되어왔기 때문에 행위론적 접근의 발전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포테스 그리고 카슬과 밀러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다차원적 구조론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주된 관심사인 거시구조와 더불어 최근 사회학의 중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연결망 등의 미시구조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구조론은 기존의 단차원적 구조론보다 국제이주의 흐름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중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 요소들만으로 이주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주는 개인 행위이고 행위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는 구조에 의해서 유인 또는 한정될 수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자원적으로 일어나는 행위(voluntary action) 현상이기 때문에 행위의 상황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주연구는 구조론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행위론적 접근은 대체로 전통적 신고전경제학적 연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간헐적으로 이주의 동기와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인 행위론적 경험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구조론에 대안적 수준에서의 행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구조론적 연구에서 파악된 주요 요소들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소로 개념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행위론의 기초를 제공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으로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론적 접근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접근의 기본 가정, 즉 합리적 행위의 가정 때문이다. 이주행위도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연구를 경시 또는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도전으로 제안된 구조론적 접근은 이주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이주의 미시구조 내지 행위의 상황적 요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이주과정을 행위체계론적 관점<sup>11)</sup>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

11) 여기서 행위체계론적 관점은 파슨스에 의한 행위의 준거틀과 사회체계를 이주연구의 개념틀로서 제안된 것임을 밝혀둔다.

음을 제안한다. 이 관점은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구조론의 한계점을 상당한 정도로 극복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위체계론은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지향, 즉 그의 상황적 요소와 상황에 대한 동기 및 가치 지향에 준거한 이론적 관점이다. 따라서 이 접근은 이주를 구조적 요소, 특히 미시구조적 요소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주행위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주에 대한 전통적 연구들은 주로 문화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관심을 둬서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을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다. 즉 과거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이주자들의 원주민과의 문화적 접촉을 중시하고 문화적 적응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고 경제학적 연구들은 이주를 노동시장에서의 합리적 선택 내지 투자 행위로 개념화하고 그 원인과 효과를 설명코자 하였다. 반면에 포테스와 카슬 등에 의해서 제안된 최근 이론들은 사회연결망, 이주서비스기관, 중개인 집단, 이주민 공동체 등 이주 행위의 중요한 사회적 상황과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보호 및 통제 등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에 넣고 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은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및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행위체계론적 접근은 국가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이주체계론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이주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체계적 요인들, 즉 국가들간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간의 관계 그 자체는 일단 이주행위와 과정의 체계외적(환경적) 요소로 고려한다. 이 말은 이 요소들은 이주 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에서만 체계내적 요소로 고려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려할 때 이주의 행위체계는 포테스, 카슬 등이 말하는 이주의 거시구조에 의해서 한정된다는 알 수 있다. 국제이주는 분명히 국가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에 의해서 한정되어 일어난다. 일정 국가간에 정치적 우호관계와 자본 및 노동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들 간의 이주는 비용과 이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출입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이주자들의 동화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질적인 경우 사회연결망과 인종공동체 내지 인종군락이 발달해서 후속 이주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주는 거시구조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주는 개별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동기와 가치 지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주의 상황을 구명하는 일이다. 그 상황은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상황에 관해서 기존 연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주의 사회적 상황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주의 연결망과 이주자들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지역공동체와 이주민 공동체 문제를 탐구하여 왔고 이들의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영구적 이주와 지역적 준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구적 이주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일시적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주자의 직장에서의 사회적 적응 문제일 것이다. 일시적 이주자들은 영구적 이주자만큼 이입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또한 실제로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와 직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더 중요한 사회적 상황은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이다.<sup>12)</sup>

둘째, 문화적 상황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원주민 문화에의 동화에 관심을 두어왔지 이주민의 문화와 수용사회 문화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긴장 등의 부적응 문제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3)</sup> 이주민들은 모두 공통적인 이방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당면하나 모든 이주민 집단이 동일한 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주민 집단의 문화는 다른 이주민 집단의 문화보다 수용사회의 문화와 더 유사 또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밝혀낼 수 있는 비교문화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이주의 비용-이익의 계산, 노동시장 조건 등의 경제적 상황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취업상황, 특히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거의 무관심해 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주자들의 경제적 적응은 그들의 직업에 따라 크게 다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8) 일시적 이주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적응에 대한 연구로서는 석현호 외(1998)을 보라.

9) 일시적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긴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정기선(1998a, 1998b)을 보라.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민수용국의 정책과 역할에 대해서 이루어졌지 송출국의 정책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Massey, 1999). 더 나아가서 이민수용국의 이민정책과 이주민 관리에 대응하는 이민집단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외 비정부기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연구도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주의 영속화와 이주민의 적응은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주과정은 그 발생과 영속 그리고 적응 과정으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으나 각각의 과정에서 관건적 요인들로서 파악된 요소들이 다른 국면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이주의 발생 원인과 영속화의 원인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발생론, 영속화론 및 적응론의 구분은 분석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정 국가간의 이주가 영속화되는 이유는 그것을 일으킨 동일한 원인, 예컨대 임금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영속화의 요인으로 고려된 사회연결망과 같은 요인은 이주자의 적응에 관건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주의 발생 초기부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석현호·정기선·장준오 (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 이혜경 (1998),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석현호 외 공저,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 정기선 (1988a),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석현호 외 공저,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 (1998b),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00, 61-78.
- Bailey, Thomas and Roger Waldinger (1991), "Primary, Secondary, and Enclave Labor Markets: A Training System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6, 432-435.
- Bonchichi, Edna (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of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547-559.
-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83-594.
- (1976), "Advanced Capitalism and Black/White Rac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34-51.
- (1979),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plit Labor Market Theory," *Research in Race and Ethnic Relations* 1, 17-64.
- Boening, W. R. (1984), *Studies in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London: Verso.
- Borhas, George J. (1983), "The Labor Supply of Male Hispanic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7(4), 653-671.
- (1985), "Assimilation, Changes in Cohort Quality,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463-488.
- (1987), "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 531-553.
- (1990), "Assimilation, Changes in Cohort Quality,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Revisited,"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2), 201-245.
- (1990), *From South of the Border: The Impact of Immigrants on the U. S. Economy*, New York: Basic Books.
- Castles, Stephen and Mark Miller (1995), *The Age of Migration*, London: Macmillan Press Ltd.

-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Basil Blackwell.
- Chiswick, Barry R. (1978),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s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897-921.
- (1980), *An Analysis of the Economic Process and Impact of Migrant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urvey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rcle.
- (1983), "An Analysis of Earnings and Employment of Asian-American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2), 197-214.
- (1984), "Illegal Aliens in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Analysis of Occupational Attainment and Earning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3), 714-732.
- (1986), "Is the New Immigration Less Skilled Than the Old," *Journal of Labor Economics* 4(2), 168-192.
- (1994), "The Performance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in Herbert Giersch (ed.), *Economic Asp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Berlin: Springer Verlag, 95-114.
- Doeringer, Peter B., and Michael J Piore (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Mass.: Lexington.
- Granovetter, Mark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1985), 481-510.
- Gurak, Douglas T., and Fe Caces (1992), "Migration Networks and the Shaping of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in Mary Kritiz, Lin Lean Lim, and Hania Zlotnik (eds.),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50-176.
- Harris J. R., and Michel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26-142.
- Hugo, Graem J. (1981), "Village-community Ties, Village Norms, and Ethnic and Social Networks: A Review of Evidence from the Third World," in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ner (eds.), *Migration Decision Making:*

-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Pergamon Press, 186-225.
- Katz, E. and Oded Stark (1986), "Labor Migration and Risk Avers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131-149.
- Kritz, Mary M. and Hania Zlotnik (1992), "Global Interactions: Migration Systems, Process, and Policies," in Mary M. Kritz, Lin Lean Lee, and Hania Zlotnik (eds.),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8.
- Laubi, Jennifer, and Oded Stark (1988), "Individual Migration as a Family Strategy: Young Women in the Philippines," *Population Studies* 42, 473-486.
- Lewis, W. Arthur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139-191.
- Light, Ivan (1972), *Ethnic Enterprise in America*,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 (1979), "Disadvantaged Minorities in Self-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20, 31-45.
- (1984), "Immigrant and Ethnic Enterprise in North America," *Ethnic and Racial Relations* 7, 195-216.
- Light, Ivan, and Edna Bonacichi (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 Massey, Douglas S. (1990a) "The Social and Economic Origin of Immig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10, 60-72.
- (1990b), "Social Structure, Household Strategies, and the Cumulative Causation of Migration," *Population Index* 56, 3-26.
- (1999),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Role of the State," *Population and Review* 25(2), 303-322.
- Massey, Douglas S., and Felipe Garcia Espana (1987), "The Soc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Science* 237, 733-738.
-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4), 699-751.
- (1998). *World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Oxford: Clarendon Press.
- Morawasaka, Ewa (1990). "The Sociology and Histography of Immigration." in Virginia Yans-MacLaughlin (ed.), *Immigration Reconsidered: History, Sociology, an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ras, Elizabeth M. (1981). "The Global Labor Market in the Modern World-Economy," in Mary M. Kritz, Charles B. Keely, and Silvano M. Tomasi (eds.), *Global Trend in Migration: Theory and Research 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Staten Island, N. 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44-63.
- Piore, Michel J. (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in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ani, Karl (1957).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in *The Great Transformation*, Karl Polani, Boston: Beacon Press.
- Portes, Alexandro (1981). "Mode of Incorporation and Theories of Labor Migration," in Mary M. Kritz, Charle B. Keely, and Silvano M. Tomasi (eds.), *Global Trend in Migration: Theory and Research 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New York: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279-297.
- (1987). "One Field, Many Views: Compet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James T. Fawcett and Benjamin C. Carino (eds.), *Pacific Bridges: The New Immigration from Asia and Pacific Islands*, Stanten Island,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53-70 .
- (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in Alexandro Portes(ed.),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41.
- Portes, Alexandro and Julia Se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1350.
- Portes, Alexandro and Robert L. Bach (1985).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 Portes, Alexandro and Ruben G. Rumbaut (1990),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lexandro and John Walton (1981), *Labor, Clas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Reinis, Gustav, and J. C. H. Fei (1961),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1, 533-565.
- Reimers, Cordlia W. (1985),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ages of Hispanics, Blacks, and Non-Hispanic Whites," G. J. Borjas and M. Tienda(eds.), *Hispanics in the U.S. Economy*, New York: Academic Press. 27-75.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Sjastaad, Larry L.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S, 80-93.
- Stark, Oded. (1984), "Migration Decision-making: A Review Artic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4, 251-259.
- Stark, Oded, and D. Levhari (1982), "On Migration and Risk in LDC,"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31, 191-196.
- Stark, Oded, and David E. Bloom (1995), "The New Economics of Labor Mi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5, 173-178.
- Taylor, J. Edward (1986), "Differential Migration, Networks Information, and Risk," in Oded Stark (ed.), *Research in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 Greenwich, Conn.: JAI Press, 147-171.
- Thomas, William I., and Florian Znaiecki (1918), *The Polish Peasants in Europe and America*,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Todaro, Michael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38-148.
- (1976),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Geneva: International Labor Office.
- (1989),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 Longman.
- Todaro, Michael P. and Lydia Marszco (1987), "Illegal Migration and US Immigration Reform: A Conceptual Framework,"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 101-114.

Waldinger, Roger (1992), "The Making of an Immigrant Niche" (manuscript,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 (1995), "The Other Side of Embeddedness: A Case Study of the Interplay of Economy and Ethnic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18(3), 555-580.

Waldinger, Roger, Howard Aldrich, and Robin Ward(eds.) (1990), *Ethnic Entrepreneurs: Immigrant Business in Industrial Societies*, Newbury Park, Calif.: Sage.



abstract

---

##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Proposal

Hyunho Seok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by three phases of migration: initiation, perpetuation, and adjustment. Through the review it is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the three phas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interrelated, and argued that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we need a theoretical guideline useful to locate all the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to the entire process of migration.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which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migration research, fails to be such a guideline, since it is grounded on the unrealistic assumption of rationality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for historical-structural factors, as neo-Marxian theorists have claimed. Two major Marxian theories,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world system theory, have been successful to identify macro-structural factors that induce main flows of international migration, but do not so in exploring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migration, especiall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at in order to grasp international migration process comprehensively we need to research the phenomena in view of action system theory, that is, to study migrants'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s inclusively.

Key Words: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tion process, factors affecting migration, adjustment of migrant